

여상규, 패트 수사 검찰엔 압력·민주당엔 욕설

〈법사위원장·한국당〉

법사위 서울중앙지검 국감 김종민 “수사 개입 발언 안돼” 조국 장관 수사 공방 지속

7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정면으로 격돌했다.

여당은 검찰의 조국 장관 수사를 독려했고, 여당은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사기단 수괴를 장관에 임명하고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도둑이 ‘도둑 잡아라’ 하는 격”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을 비난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의 일부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만 들어 검찰과 총성경쟁을 시키려는 것이 목표”라며 “정권 장기집권의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도 “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권력층의 부패와 비리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자리에 있을 때 사표도 문제야 일어났다”며 “서초동 집회는 기독교 특혜에 대한 분노, 공정과 정의를 바라는 열망이라고 본다”고 거듭했다.

여당은 조 장관 주변 수사가 검찰권의 과잉 행사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조 장관에 대한 고발장이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가 특수2부로 옮겨지는 과정을 누가 결정했는지 கே물며 이례적인 수사라는 점을 부각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본격적인 압수수색 이전에 내사 의혹 등을 제기하며 검찰이 조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 표적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3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내사라는 이름을 안 붙였지만 사건을 살펴보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것 자체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침해가 아닌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답변을 통해 “자체적으로 내사한 적이 없다. 압수수색은 대검과 협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압수수

색에 참여한 여검사가 무차별 사이버 테러가 행해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같이 쫓힌 인형이 배당되는 상황”이라며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 테러나 겁박,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검사나 수사관이 있으면 체계 정확한 사례와 함께 문건으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욕설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 위원장은 자신의 신상발언에 반발하는 김 의원을 향해 “누가 당신한테 자격을 (부여) 받았어. 웃기고 앉아 있네. 진짜 X신 같은 게. 아주”라고 말했다. 두 사람 간 갈등은 여 위원장이 송삼현 남

부지검장을 향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고발 사건을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여 위원장은 송 지검장에게 질의를 통해 “야당 의원이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려다 고발당했는데 그건 순수한 정치 문제”라며 “검찰이 손발 일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여 위원장의 발언을 지적하며 “여 위원장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질의하거나 주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국감장에서 감사위원 자격으로 해서는 안 될 말이다. 명백하게 반칙”이라고 반박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여 “에너지 전환은 추세”...야 “공기업 적자”

교섭단체 3당 ‘검찰개혁 방안 논의’ 합의

산자부 국감 탈원전 공방

7일 실시된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세계적 추세에 부합한다고 옹호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이 줄줄이 적자 수렁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야당은 탈원전 정책이지만, 우리는 에너지전환 정책이라고 한다”며 “지속 가능한 재생 에너지를 만들자는 것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수혁 의원은 “세계적 경향에 맞추거나 앞장서는 것인데 야당과 국민이 이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아직 국민을 설득시키지 못한 것은 정부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한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에너지 공기업이 탈원전 직격탄을 맞고 줄줄이 적자 수렁에 빠졌다”며 “에너지는 더 잘 굴러가게 보호만 하면 되는데, 못 굴러가게 막으면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에 조속히 착수하는 한편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별도 논의 테이블을 만들기로 했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운영위원회 자리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패스트트랙으로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법안들 논의를 조속히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면서 “비쟁점 민생경제

법안들 관련해서는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조속히 국회가 처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사법개혁 법안과 관련, “사법개혁 법안이 법제사법위로 넘어갔으며 180일 기한이 끝나는 10월 28-29일쯤이 되면 얼마든지 본회의로 넘어가 처리를 표결할 수 있는 상태”라면서 “내용이 합의된 것은 아니고 시점이 실질적인 합의 도출을 시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논의 방식에 대해서는 “법사위서 논의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방법)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국감 브리핑

서삼석 “국산 종자 보급 지지부진...매년 808억원 적자”

국산 종자 신제품 보급이 지지부진하면서 종자 무역에서 우리나라가 연간 약 808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7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국산 품종 점유율 및 무역수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과수와 화훼작물의 국산 품종 점유율은 각각 15.8%와 32.8%에 그쳤다.

품종별 국산점유율은 과수 작물인 복숭아 34.5%, 잡다래 24.6%, 사과 19%,



배 13.6%, 포도 4%, 감귤 2.3% 순이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장미 국화 등 화훼류와 감귤, 버섯 등 외국산 종자 사용 대가로 지급된 로열티는 590억원으로 연간 118억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된 셈이다.

서 의원은 “고품질 신제품 개발과 보급으로 특단의 성과 제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친일 인사 시설물 친일 행적 단죄비 설치해야”

대안신당 최경환(광주북구)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광주시가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 설치한 단죄비를 소개했다.

최 의원은 “친일 인사 가족들이 국가 등록문화재에 등재돼 세금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친일 행위에 대한 안내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최근 광주시는 친일 문화재에 단죄비, 안내판, 표찰 등을 설치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문화재청은 세금으로 친일인사 가족이나 시설물을 보수 관리하고 있지만, 이들의 친일 행적에 대한 안내판이나 설명 자료는 전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문화재청은 시민들에게 역사를 바로 알려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손학규 “유승민 탈당 논의는 해당 행위”

바른미래 대표...“조치 취할 것”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7일 “유승민 전 대표를 중심으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 행동’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공공연하게 탈당이나 신당 창당이라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데 당원로서는 절대해서는 안 되는 해당 행위”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당원 윤리 규범에 ‘모든 당원은 당 발전을 위한 활동에 협력해야 한다’고

했고, ‘사회상규에 위반하는 언행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 전 대표를 위해서 분파적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이 이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분파적 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최고위원들은 최고위에 출석해서 최고위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민주 광주시당 ‘허위 출장’ 시의원 4명 징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허위출장 논란을 빚은 민주당 소속 광주 북구의회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광주시당은 7일 위원장(송갑석 의원) 직권으로 물의를 일으킨 고점례 의장 등 북구의회의 의원 4명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광주시당은 조만간 윤리심판원을 열어 의원들의 소명을 듣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송갑석 위원장은 “올해 초 당 소속 의원들과 외유성 국회의원수 근절 결의 대회

를 개최했고 연수 문화를 개선하려 큰 노력을 했는데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철저한 조사로 엄정 대응하고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 의장 등 구의원 4명과 사무국 직원 3명은 지난달 26~27일 ‘통영시의회 방문’ 출장을 다녀왔지만 정작 시의회는 외관만 보고 대부분 관광성 일정만 소화해 가짜 출장 논란을 빚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부동산 추천 물건

- 토지**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계획관리지역) 토지 : 3834㎡(1159.78평)
매매가 2억9천만원 강천산휴게소,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인근, 투자기회 좋음.
- 토지** 광주 동구 지산동 (자연녹지지역) 토지 : 1948㎡(589.27평), 건물 : 255.61㎡(77.32평)
매매가 26억5천만원 지산유원지 카페거리 조정가능.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층 지상7층 매매가 : 55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 : 1686.5㎡(510평) 건물 : 3000.8㎡(907.74평)
지상2층 매매가 : 45억 아파트밀집지역, 중심상권.
- 건물**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 32억 현 사우나 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병원** 광주 광산구 삼가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층 지상3층 매매가 :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인근.
- 병원**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 36억 전시광고효과 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

경매 추천 물건

- 근린시설** 전남 목포시 명륜동 토지 1131㎡(342.128평) 건물 : 7617.71㎡(2304.367평)
지하3층 지상8층 감정가 : 54억6천5백만원 최저가 : (70%) 38억2천5백5십만원
- 근린주택** 전남 장성군 진원면 산정리 토지 : 224㎡(67.8평) 건물 : 264.27㎡(79.9평)
지상2층 감정가 : 4억6천2백만원 최저가 : (70%) 3억2천3백5십만원
- 다가구(원룸)** 전남 화순군 동면 백용리 토지 : 1582㎡(478.6평) 건물 : 298.92㎡(90.4평)
창고, 공장, 근린시설 적합 감정가 : 3억6천1백만원 최저가 : (56%) 2억 2백2십만원
- 다가구(원룸)** 광주 북구 풍향동 767 토지 : 227㎡(68.7평) 건물 : 749.02㎡(226.6평)
지하1층지상3층 감정가 : 6억7천7백만원 최저가 : (70%) 4억7천4백만원
- 주택** 광주 남구 백운동 토지 : 225.5㎡(68.214평) 건물 : 243.77㎡(73.74평)
감정가 : 3억1백3십만원 최저가 : (70%) 2억1천9십만원
- 아파트** 광주 서구 금호동 쌍용에가 55평형 감정가 : 8억3천5백만원 최저가 : (70%) 5억8천4백5십만원
- 아파트** 광주 서구 풍암동 에스케이뷰 56평형 감정가 : 8억2천만원 최저가 : (70%) 5억7천4백만원
- 오피스텔** 광주 서구 치평동 로잔티움파크 78평형 감정가 : 4억4천1백만원 최저가 : (70%) 3억 8백7십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